

국힘의 '험지' 초록불 켜질까... 민주 '우세 12곳·초접전 4곳'

총선 서울 판세 분석

①한강 북쪽은 누가 유리할까

22개 지역구 중 민주당 우세 12
21대 총선서도 민주당 싹쓸이
"국힘 약재 지나가면 기세 올릴 것"

4·10 총선이 14일 남은 27일 현재, 정
치권은 최대 격전지로 서울을 꼽는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의석의 3분의 1이
넘게 몰려 있다. 서울만 해도 48개로,
300석 중 6분의 1에 육박한다. 수도권
의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
히 수도권은 중앙정치 이슈에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양당 모두 약재를 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포함한 강북 22개 지역구
의 판세를 살펴봤다. 여론조사와 각 당
의 전언을 종합하면 강북지역은 전반적
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많
다. 19대 총선 이후 강북은 국민의힘에
'험지'로 여겨질 만한 곳이 많아져서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다. 서울 강북 22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12곳, 초접전지는 4곳, 접
전지는 6곳이다.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서울 강북갑·을, 노원갑·을, 도봉갑·
을, 중랑갑·을, 마포을, 서대문을, 은평
갑·을이다. 이 중 서대문을과 도봉갑·을
을 제외한 곳은 여론조사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강북·노원·중랑·
은평구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표심이 굳
건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
당이 싹쓸이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 지역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도봉갑과 서대문을, 마포을이다. 마포
을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로 정 의원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고 판단했고,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후
보를 마포을에 공천했다. 이 때문에 마
포을의 대진표가 완성됐을 때 지역 단
위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10%포인트 이상 정청
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서대문을 역시 국민의힘에는 '험지'
로 꼽는다. 이 때문에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대문으로 차출했다. 장관 출신에 중
량급 있는 인사가 서대문으로 이동하다
보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가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15%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더 지
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측
에선 김영호 의원이 '바닥 선거'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봉갑은 '이재명의 입'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공천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지
역은 4년 전 총선에 나왔던 김재섭 국민
의힘 후보가 여당 후보로 나섰다. 두 후
보가 모두 젊은 정치인이지만, 김 후보는
지역을 오래 다녔고, 안 대변인은 전략공
천을 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이 어렵
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도
봉갑 역시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강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경
합으로 보고 있는 지역은 용산과 동대문

갑, 광진갑, 중·성동을 등 4곳이다. 용산
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이곳에서 당선된 것은
단 두 차례 뿐이다. 그나마도 한 차례는
새누리당(국민의힘)에 있던 진영 의원
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해 당선된 경
우다. 이에 용산의 최근 여론조사 추이
를 보면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 전 장
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동대문갑과 광진갑, 중·성동은 여
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접전지라는 것이 양당의 평가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지역에
서 표심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어느 쪽
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외에 접전지로는 종로, 광진을, 동
대문을, 마포갑, 서대문갑, 중·성동갑
등 6곳이 꼽힌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경합우세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마포갑과 서대문갑이 백중세라고 진단
했다. 국민의힘은 약재가 어느 정도 지
나가면 수도권에서 기세를 올릴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서면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저출생 해법... 국힘 '현금지원 재설계' vs 민주 '3자녀 1억'

각 정당들 저출생 문제해결 정책
국힘, '인구부' 신설 각종 갈등 해소
민주, 주거·자산 축적 등 패키지 내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
72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 가운데,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을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보육·양육·자산
축적·안전·노동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
과 연관이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은 패키
지 정책을 내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갈을 빼들었다.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 행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

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
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
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
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7년
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넓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

민이힘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
국에 비해 육아기에 현금성 지원이 대
폭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재설계
해서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
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
획이다.

◆민주당, '결혼·출산·양육의 양립'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

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
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
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
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
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
을 내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처음부터 끝까지 시~바른 발전

친환경 발전소를 세우고
바른 에너지를 만들고
안전한 원전 해체를 통해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모든 올바른 발전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